

찰이 세워지면서 직산리 삼층석탑도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보문사도 폐사되고 2000년경에 개인 불당이 세워져 있다.⁸¹⁵

직산리 삼층석탑을 도난당하기 전의 기록과 사진을 토대로 살펴보면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목조 건축의 형태를 띤 평면 방형의 백제계 삼층석탑이다. 기단부 갑석만 남아 있기 때문에 기단부의 형태는 알 수 없고, 2단의 받침을 각출한 갑석 위에 탑신부를 세웠다. 기단 갑석 윗면은 각호형 2단의 초층 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다. 탑신부는 3층으로,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별도의 한 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 탑신석의 각 면에는 두 개의 우주가 얹게 모각되어 있으며, 탑신석 높이는 올라갈수록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며, 3층 탑신석은 결실되었다.

직산리 삼층석탑의 각 층 지붕돌 받침은 모두 3단인데, 1단과 3단은 각형이고, 2단은 호형의 형태를 취하였다. 각 층 지붕돌 지붕 윗면에는 1매의 판석으로 된 각형 1단의 탑신 받침이 별석으로 되어 있다. 지붕돌 지붕의 낙수면은 급한 경사를 이루다가 끝에 와서 완만하다. 추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이며, 처마 밑도 전각에 이르러 미미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낙수면 하부가 안으로 굽어 있는 등 목조 건축의 양식을 모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붕돌의 형태는 둔중한 느낌을 준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양화만이 남아 있다. 노반, 복발과 양화에는 약 5~6cm 크기의 원형 찰주공이 있다.

직산리 삼층석탑은 현재 없어진 상태이다. 기단부는 1매의 판석으로 된 갑석만 확인되었고, 그 아래는 땅에 묻혀 알 수 없지만, 탑의 균형적인 비례를 감안할 때 기단부는 단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3층 모두 3단 꺾임인데, 모두 제2단을 사분도(四分圖) 물딩형으로 하였고, 낙수면 아래도 내곡(內曲)하는 등의 공예탑임이 주목된다. 직산리 삼층석탑은 결국 수법에서 부재의 개별화와 지붕돌받침에서 목조 건축의 공포를 모방한 형태 등 목조 건축의 양식을 반영한 백제계 석탑으로,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⁸¹⁶

제4절 불상과 불화

1. 불상(佛像)

불상은 부처, 곧 석가여래의 모습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815.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63쪽

816. 심현용, 2005, 앞 논문, 101~102쪽

부처의 상은 물론 보살상·천왕상·명왕상·나한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불상은 기원전 2세기 경에 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져,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상에는 조각으로 만든 조소상과 그림을 그린 화상의 두 가지가 있다. 조소상에는 금속으로 만든 주상, 나무로 조각한 목상, 돌로 조각한 석상이 있다. 화상에는 비단이나 종이에 그린 불화상, 벽에 그린 벽화, 수를 놓은 자수상이 있다. 주상에는 쓰인 재료에 따라 금상·은상·금동상·철상 등이 있으며, 목상에는 통나무로 조각한 일목조와 여러 부분을 조각하여 짜맞춘 합목조가 있다. 석상에는 큰 바위 벽에 새긴 마애불상도 있다. 또한 불상은 자세에 따라 입상·좌상·와상·반가상 등으로 구분하며, 만드는 재료에 따라 석불·목불·철불·금동불·건칠불·토불 등으로 구분한다.

고려시대에는 거석불의 건립이 지방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울진에서는 그러한 양상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현 상태에서 쉽게 단정할 수 없겠지만, 장재사지 석불과 백암사지 소조불에서 보이는 양식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전국적인 불상양식과 동일한 점, 조선 후기에 와서 전국적으로 소조불이 다수 출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등은 울진지역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전국적인 유행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⁸¹⁷

울진 지역에는 46개의 사찰이 유존하고 있어 불상 또한 많이 봉안되어 있다. 그러나 불영사를 제외하면 전통사찰이 없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불상이 거의 없다. 그나마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불상은 고려 중기의 장재사지 석불 1구와 조선 후기의 월궁사 소조불좌상, 불영사 지장보살삼존상 2구 등 3구가 유존한다. 불영사 대웅전 삼존좌상은 현대에 제작되었지만 600년 된 은행나무로 만든 목불상이라 포함하였다.

<표 68> 울진군의 불상

불상	위치	제작시기	비고
주인리 석불좌상 (장재사지 석불좌상)	북면 주인리	고려 중기	약사여래좌상으로 추정
월궁사 소조불좌상 (백암사지 소조불좌상)	평해읍 월송리 월궁사 대웅전	조선 후기	온정면 고모산성 석굴에서 옮겨와서 봉안
불영사 지장보살삼존상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명부전	조선 후기	석불상, 본존인 지장보살과 협시로 도명존자, 무독귀왕
불영사 대웅전삼존좌상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대웅보전	현대	목불상, 본존인 석가모니불과 협시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심현용, 2008, 「울진지역의 불교문화 연구」 『경주문화연구』10,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원, 185~186쪽 <표 1> ‘울진지역 불교유물 현황’을 참고로 작성하였음

817. 심현용, 2008, 「울진지역의 불교문화 연구」 『경주문화연구』10,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원, 187쪽

1) 불영사 대웅전 삼존좌상(佛影寺大雄殿三尊坐像)

불영사 대웅전 삼존좌상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대웅전에 있는 현대의 목불상이다.

불영사 대웅전 삼존좌상은 가운데에 석가모니, 오른쪽에 문수보살, 왼쪽에 보현보살이 위치한다. 좌우 협시불은 보화(寶花)새김의 보관을 쓰고 있으며 삼도가 있다. 또한 현수가 귀를 감아 내리고 있으며 연경을 잡고 있다. 주존불인 석가모니불은 나발에 육계가 있다. 통견을 하고 삼도의 구분이 있으며 군의대(裙衣帶)를 하였다. 규모는 앞은 높이 99cm, 머리 높이 33cm, 어깨 너비 54cm, 가슴 너비 41.5cm, 무릎 너비 69cm, 무릎 높이 14cm이다.

불영사 대웅전 삼존좌상은 2002년 주지 일운이 봉안한 불상이다. 불영사 안에 있는 600년 된 은행나무의 큰 등치가 부러져서 그것을 4년간 물에 담그고 말리기를 거듭해서 조성하였다. 후불탱화의 화려함에 맞춰 불상에 직접 천을 둘러 가사를 칠보로 장식하였다.⁸¹⁸

2) 불영사 지장보살삼존상(佛影寺地藏菩薩三尊像)

불영사 지장보살삼존상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후기 석조 지장보살삼존상이다. 지장보살은 인도에서 4세기경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중국·한국·일본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매우 널리 숭배되어온 보살이다. 형상은 삭발한 승려의 모습이거나 두건을 쓴 모습이며, 머리 뒤에는 서광이 빛나고 두 눈썹 사이에는 백호가 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한 손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힘을 지닌 석장(錫杖)을, 다른 한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여의보주를 들고 있다.

중앙에 본존인 지장보살이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좌우 협시로 도명존자, 무독귀왕이 시립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얼굴은 원만하고, 머리에는 투명 두건을 쓰고 있다. 법의는 양쪽 어깨에 모두 걸친 통견의인데, 그 표현이 매우 두터운 편이다. 앞가슴에 가로로 된 옷 주름이 표현되었으며 아래로 흘러내려 결가부좌한 다리를 감싸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은 손가락을 모두 펴고 무릎에,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오른발 위에 올려놓고 있다. 양옆의 도명존자는 민머리에 합장을 하고 있고, 머리에 보관을 쓴 무독귀왕은 가슴에 모은 두 손이 옷에 살짝 감추어져 있다. 불영사지장보살삼존상의 크기를 보면, 지장보살은 높이 139cm, 무릎 너비 107cm이고, 도명존자는 높이 125cm, 어깨 너비 43.8cm, 무독귀왕은 높이 127cm, 어깨 너비 37.5cm이다.

불영사 지장보살삼존상은 석조로 제작되었는데 본존인 지장보살은 개금을 하였으며, 협시인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화려하게 색을 입혔다. 석불이지만 뛰어난 조각솜씨와 예술성

818.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대웅전 삼존좌상」,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2일

을 보여주고 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조선 후기 지장보살삼존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⁸¹⁹

3) 월궁사 소조불좌상(月宮寺塑造佛坐像)

월궁사 소조불좌상은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인 월궁사 대웅전에 있는 조선 후기 불상이다. 월궁사 대웅전에는 본존불인 소조불좌상 좌우에 지장보살상과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월궁사 소조불좌상은 현몽을 통해 백암사지에 있던 것을 찾아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 불신에 비해 불두가 큰 편이고, 중간계주가 있는 나발의 머리에 상호는 긴 편이다. 불신은 양감 없이 다소 부푼 듯하고 통견으로 걸친 대의도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오른 어깨에 대의자락이 걸쳐져 있다.⁸²⁰

최근에 월궁사 대웅전 불상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었다. 월궁사 대웅전 불상은 석불이 아니라 소조불(塑造佛)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소조불좌상으로 통일하였다. 논문에서는 주민들의 증언과 학술적 연구 성과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래 월궁사 불상은 백암산 절터골의 ‘백암사지’에 있던 것으로 절터보다 약 50m 위에 있는 큰 너럭바위 하부에 생긴 작은 암실에 모셔져 있던 것을 1960년대 초에 온정리 출신인 월궁사주지가 4명의 남자를 시켜서 지금의 월궁사로 옮겼다고 한다. 옮기기 전 암실에 있던 불상은 몸 전체가 회가 바래 누른색을 띠었으며, 오른쪽 눈언저리와 코끝이 파손되어 있었고 백호는 회를 도톰하게 만들어 표시하였으며, 오른쪽 귀의 아래끝단 부분은 떨어져 없었다. 또 목은 부러져서 머리와 몸통이 2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내부는 회로 꽉 차 있었다 한다. 지금 월궁사에 있는 불상은 오른쪽 귀 뒷면에 새로 붙인 흔적이 있고 목 뒤에도 부러진 목을 붙인 흔적이 있다. 이는 월궁사로 옮겨와 보수한 흔적으로 증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다. 지금은 금칠되어 있으며, 눈·코끝이 마모되고 귀와 목이 파손되었던 것을 보수하여 얼굴표정이 좀 변한 것을 제외하고는 옛날과 동일하다. 목 파손으로 인해 삼도가 원래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목 길이는 몸의 비례로 보아 지금처럼 짧았던 것 같다.”⁸²¹는 주민들의 증언을 밝히고 불상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불상의 상호는 대체로 방형이고, 길고 넓적한 양쪽 귀는 눈썹부근에서 입 아래까지 내려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머리는 몸에 비해 크고 나발로 되어 있으며 거의 둥그스름하게 보이는 나지막한 육계 위로 보주형의 작은 정상계주를, 머리 앞 가운데에는 반달형의 중앙계

819.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지장보살삼존상」,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2일

820.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63쪽

821. 심현용, 2008, 앞 논문, 175쪽 주37

주를 표현하였다. 이마는 넓으며 구슬을 박은 백호가 있다. 눈썹을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 눈 주위를 약간 낮게 처리하였으며, 눈은 길고 가늘게 뜨고 있다. 코는 오뚝하며 볼은 도톰하여 얼굴에 살이 올랐다. 입술은 도톰하고 인중은 또렷하게 표현되었다. 가늘게 뜬 눈과 오뚝한 코, 굳게 다문 작은 입술에서 답답한 인상이 느껴진다. 목은 짧고 넓으며 삼도는 표현되지 않았고 어깨는 머리 크기에 비해 좁은 편이다.

법 의는 통견이며 옷주름의 표현이 거의 없어 정교한 맛은 감소되었다. 양 어깨를 덮어 목 직하게 흘러내린 법 의는 양 손목 위에서 두텁게 흘러 내렸으며, 가슴 앞에서 수평으로 가로 지른 군의는 띠매듭을 돌렸다. 어깨에 걸친 대의에는 세로선의 두터운 주름이 묘사되었고, 등의 좌측에도 세로선의 두터운 주름이 연결되어 있다. 또 오른쪽 어깨만 밖으로 향하여 옷 주름이 약간 표현되었으며, 결가부좌한 오른쪽 무릎에는 넓게 타원형으로 걸쳐 표현되어 도식적인 모습으로 처리되었다. 수인은 무릎에 두 손을 얹은 형태로 손등을 위로하고 손을 펴서 아래로 향했으며, 손가락을 모두 표현하였는데,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약간 파손되었다. 앉은 자세는 오른발을 위에 얹은 반가부좌이다. 불상의 크기는 앉은 높이 66.5cm, 머리 높이 26cm, 어깨 너비 30cm, 가슴 너비 21cm, 무릎 너비 48cm, 무릎 높이 14cm이다.

제작 시기는 신체에 비해 비대해진 얼굴과 좁은 어깨, 짧은 목 등 전체적으로 획일적인 얼굴과 도식적인 주름의 표현에서 보듯이 조선 후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18~19C의 작품으로 추정된다.⁸²²

월궁사 소조불좌상은 원래 온정면 온정리 백암산에 있는 백암사지에 있었으나, 지금의 월궁사로 이견되었다. 그동안 이 불상을 돌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월궁사 석불좌상’으로 알려졌으나, 이 불상은 회로 빚어 만든 소조불 좌상이라는 것이며, 명칭도 ‘백암사지 소조불 좌상’이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4) 주인리 석불좌상(周仁里石佛坐像)

주인리 석불좌상은 울진군 북면 주인리 주인리사지에 있는 고려시대 석불상이다. 주인리 사지는 북면 주인리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로, 장재산의 북편 골짜기에 있어 장재사(長在寺)라는 사명(寺名)이 전해지는 절터이다. 현재 주인리사지에는 석탑과 석불이 남아있으며, 장재사지라고도 불린다.

주인리 석불좌상은 ‘주인리 석불’로도 알려져 있다. 주인리 석불좌상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결가부좌한 약사여래좌상이다. 머리와 얼굴부분은 파손되고 마모가 심하여 자세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소발과 육계는 세부적으로 표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육계는 머리

822. 심현웅, 2008, 위 논문, 175~178쪽

의 중앙 부분을 약간 도드라지게 대충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백호는 이마에 있는데, 이 불상에는 머리에 흔적 구멍이 있다. 왼쪽 눈은 은행처럼 크게 윤곽이 나타나며 코도 굽게 조각되어 있다. 왼쪽 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을 듯이 내려져 있고 오른쪽 얼굴·귀와 입은 마모와 파손이 심해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왼쪽과 같을 것이다. 삼도는 목보다 아래인 가슴 윗부분에 2개의 선으로만 희미하게 표현하였다. 몸체 부분은 우견편단으로 된 법의 위로 가사가 덮여 있다.

가사 안에는 우견편단에 군의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군의에는 띠매듭이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띠매듭이 보이지 않는다. 가사는 두 겹으로 되어있으며, 왼쪽 팔 위로 덧입은 가사의 주름이 보인다. 이 가사는 오른쪽 어깨 뒤로 올라가 오른쪽 어깨를 덮고 있으며, 등에는 옷고름 같은 형태가 보이는데, 이는 덧입은 가사의 매듭이다. 전체적으로 옷주름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층단식으로 표현하였고 팔 부분의 법의자락 흘러내림은 도식화되었다. 오른쪽 가슴에는 젖꼭지를 음각으로 나타냈으며, 그 밑으로 젖가슴 윤곽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팔·손과 왼쪽 손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다. 팔은 아래로 내려 걸가부좌한 다리 위에 올라가 있고 손은 보주 또는 약합의 지물을 들고 있다. 무릎 이하는 땅에 묻혀 있다.

불상의 크기는 앉은 높이가 80cm[머리높이 24cm, 어깨에서 무릎까지 높이 56cm], 어깨너비 38cm, 가슴너비 45cm, 몸둘레 107cm이다. 이 석불은 파손과 마모가 전체적으로 심해 제작 시기를 추정하기는 무리가 많으며, 고려시대 또는 고려시대 초기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세부양식으로 보아 고려 중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⁸²³

2. 불화(佛畵)

불화는 ‘불교회화(佛教繪畵)’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좁은 의미로는 존상화(尊像畵), 즉 절의 법당 같은 곳에 모셔 놓고 예배하기 위한 그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불교도나 이교도를 교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절을 장엄하게 하기 위한 단청 등 불교적인 목적을 지닌 일체의 그림을 일컫는다. 또 불화는 그려진 주제에 따라 불화, 보살화, 나한·조사도, 신중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탕화는 벽면 같은 곳에 거는 그림으로 흔히 족자형 또는 액자형의 불화이다. 고려시대 이후, 특히 조선 후기에 애용되던 형식의 불화로 현재도 가장 많이 남아 있다. 판벽화는 누각이나 건물의 바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붙이고 불화를 그린 것이다. 사찰의 나무 기둥이나 문 등에 그린 그

823. 심현용, 2008, 위 논문, 174쪽

림도 판벽화라 할 수 있다.

울진 지역의 현존하는 사찰의 불전에는 불화가 봉안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불화는 보물 1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2점 등 5점이고, 지정문화재에 버금가는 불화가 6점이다. 이중 광흥사, 수진사, 광도사 불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8점은 불영사 소장 불화이다. 판벽화인 광흥사 불화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족자형 탕화이다. 제작 시기는 모두 조선 후기로 불영사 시왕탱과 불영사 백의관음보살후불탱만 정확한 제작 시기가 밝혀지지 않고 나머지는 제작 시기가 명확히 밝혀져 있다.

1) 불영사 독성탱(佛影寺獨聖幀)

불영사 독성탱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성보관에 있는 조선 말기 나반존자를 그린 불화이다. 불영사 독성탱의 독성은 부처의 제자로서 홀로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고 석가모니불의 수기를 받아 남인도의 천태산에 머무르다가 말세중생(末世衆生)의 복덕을 위하여 출현하였다고 한다. 그 때문에 특별히 복을 희구하는 신도들의 경배 대상이 되고 있다.

불영사 독성탱은 수독성탱(修獨聖幀), 나반존자도(那畔尊者圖)라고도 하는데, 보통 16나한도와 같은 구도로 그려진다. 나반존자에 대한 신앙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신앙 형태로 사찰의 독성각 또는 삼성각에 봉안된다. 독성각에는 나반존자상이나 탕화를 단독으로 모시고, 삼성각에는 칠성신·산신 등과 함께 모신다. 불영사 독성탱은 102cm×89.5cm의 크기로, 소나무와 천태산을 배경으로 하여 늙은 비구가 하얀 머리카락을 드리우고 유희좌(遊戲坐: 한쪽 다리는 걸가부좌하여 대좌 위에 얹고 다른 다리는 아래로 내린 자세)를 취하고 앉아 있는데, 눈썹은 매우 길게 묘사되어 있고 얼굴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표 69> 울진군의 불화

불화	봉안장소	제작시기	문화재 지정
불영사 영산회상도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대웅보전	조선 후기 영조 11년(1735)	1997년 8월 8일 보물 제1272호로 지정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대웅보전	조선 후기 철종 11년(1860)	2010년 4월 5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3호로 지정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	온정면 덕산리 광흥사 대웅전	조선 후기 영조 46년(1770)	2018년 7월 16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0호로 지정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	평해읍 오곡리 수진사 대웅전	조선 후기 순조 3년(1803)	2009년 7월 6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53호로 지정
울진 광도사 신중도	후포면 후포리 광도사 대웅전	조선 후기 (19세기 중반)	2018년 7월 16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62호로 지정
불영사 독성탱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성보관	조선 후기 고종 18년(1880)	

불화	봉안장소	제작시기	문화재 지정
불영사 삼장탱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대웅보전	조선 후기 영조 15년(1739)	
불영사 산신탱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성보관	조선 후기 고종 18년(1880)	
불영사 시왕탱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성보관	조선 후기	
불영사 백의관음보살후불탱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황화실	조선말기/개항기	
불영사 지장보살후불탱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명부전	조선 후기 고종 18년(1880)	

울진군, 2001, 『울진군지』 제4편 제2절 지정문화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음

일반적으로 독성도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석장(錫杖)을 짚고 앉아 있는 늙은 비구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불영사 독성탱은 관음보살도와 비슷하게 유희좌를 취하고 있다. 또한 얼굴에는 미소 대신 근엄한 표정이 서려 있다. 화기가 남아 있어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 말기 불화의 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⁸²⁴

2) 불영사 백의관음보살후불탱(佛影寺白衣觀音菩薩後佛幀)

불영사 백의관음보살후불탱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황화실에 있는 조선 말기 백의관음보살을 소재로 그린 불화이다. 불영사 백의관음보살후불탱의 백의관음은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 혹은 대백의관음(大白衣觀音), 복백의관음(服白衣觀音), 백의관자재모(白衣觀自在母)라고도 한다. 보통 백의관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백의를 걸치고 있다. 백의관음은 식재제병(息災除病)의 수법(修法)의 존상으로서 구아(求兒)·안산(安産)·육아(育兒) 등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다.

불영사 백의관음보살후불탱은 145cm×187.5cm의 크기로 비교적 큰 작품이다. 방형의 화면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원 안에 두광과 신광을 갖춘 관음상을 배치하였는데, 마치 고려 시대 불화에서 둥근 달을 상징하여 관음도상을 감싼 거신광처럼 표현하고 있다. 관음상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해수면 위로 솟은 암좌에 유희좌(遊戯坐)[한쪽 다리는 결가부좌하여 대좌 위에 엮고 다른 다리는 아래로 내린 자세]를 취한 모습으로 크게 표현되어 있다. 배경의 한쪽에는 암반 위로 청죽이 솟고, 다른 한쪽에는 상단에 청조(靑鳥)와 관음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 암좌에 버들가지의 꽃은 금색 정병이 놓여 화면의 기본 구성을 이룬다. 해중(海衆)에는

824.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독성탱」,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3일

협시군이 묘사되어 있는데, 관음의 왼쪽에는 관음을 경배하는 합장형의 남순동자(南巡童子)를 배치하고, 그 반대쪽에는 홀(笏)을 쥔 해상용왕을 배치하여 화면은 전체적으로 좌우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다.

화면 전면에 관음보살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여래의 위엄 있고 엄숙한 태도를 갖춘 구제 관음(救濟觀音)으로서의 위신이 한층 강조된 듯하다. 존상의 부각된 형태와 정면관은 화면 밖에서 그림을 보는 이들의 시선을 본존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백의관음은 조선 시대 민중들의 정신적 의지처로서 관음신앙이 성행하면서 관음전 건물의 후불 벽화로 많이 그려지던 소재이다. 불영사 백의관음보살후불탱은 비록 벽화는 아니지만, 건물 벽면에 독립적으로 그려진 벽화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불교 회화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학술 자료이다.⁸²⁵

3) 불영사 산신탕(佛影寺山神幀)

불영사 산신탕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성보관에 있는 조선 말기 산신을 소재로 그린 작자 미상의 불화이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산신각을 두고 그 안에 산신도를 모시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불교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나 고유의 산악신앙, 즉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신불(神佛) 수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산신각은 불교 사찰 사료를 통해서 볼 때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고, 현존하는 산신탕화도 조선 후기 이전의 작품은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산신탕화를 사찰에 봉안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로 추정할 수 있다.

불영사 산신탕은 100cm×87cm의 크기로, 전국의 어느 사찰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탕화이다. 일반적으로 산신도는 호랑이의 변화신(變化身)인 신선을 큼직하게 그리고, 호랑이는 신선 앞에 정답게 애교 띤 모습으로 그린 경우가 많다. 호랑이는 대호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처럼 그리는 경우도 있으며, 민화 풍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섭지 않고 해학적으로 그리는 예가 많다. 신선은 항상 깊은 산, 그윽한 골짜기를 배경으로 기암괴석 위에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간혹 옆에 동자를 배치하여 시봉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불영사 주지실에 산신도 복장 발원문이 남아 있어 제작 연대는 물론 제작처와 제작 동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산신탕화는 복덕을 회구하는 자들의 신앙이 되기보다는 사찰 수호신으로서의 구실이 더욱 강한 불화이다. 산신도는 거의 모든 사찰에 있는데, 제작 시기는 그다지 올라가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불화보다 많이 남아 있어 불교 회화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학술 자료이다.⁸²⁶

825.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백의관음보살후불탱」,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3일

826.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산신탕」,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3일

4) 불영사 삼장탱(佛影寺三藏幀)

불영사 삼장탱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대웅보전에 있는 조선 후기 삼장보살을 소재로 그린 불화이다. 삼장보살은 천장보살(天藏菩薩)·지지도살(持地菩薩)·지장보살(地藏菩薩)을 일컫는 것으로, 경전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장신앙이 확대·심화되어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의 삼신사상 또는 삼세사상(三世思想)으로 분화·발전된 비로자나불이나 석가여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실제로 삼장보살이라는 명칭은 그림의 화기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며, 그 각각의 성격이 『범음집(梵音集)』[1723]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천장보살은 상계교주(上界敎主), 지지도살은 음부교주(陰府敎主), 지장보살은 유명계교주(幽冥界敎主)로 각각 천계·지상계·지하계로 신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장탱이란 천장보살·지지도살·지장보살을 중심으로 각 권속들을 한 화폭에 표현한 그림으로, 불교의 중요한 천도재인 수륙재의 한 부분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수륙재에서는 불교 세계의 모든 성중(聖衆)들을 의식에 초대하는데 그 가운데 중단 부분으로 초대되는 성중들이 바로 삼장탱의 구성원들이다.

불영사 삼장탱은 188cm×236cm의 크기로, 영조 15년(1739)에 화원 밀기(密機)를 비롯하여 채원(彩元)·서징(瑞澄)이 관여한 작품이다. 중앙의 천장보살과 왼쪽의 지지도살, 오른쪽의 지장보살로 구성된 보살상 3위를 중심으로, 보살상 전면인 높은 방형단 앞쪽에 원형의 두 광을 드리운 협시들이 각각 2위씩 배치되어 있고, 삼장보살 좌우와 위쪽으로 천부도상과 신중상 등 여러 권속들이 화면을 꽉 메운 형상이다. 천장보살 좌우에 진주보살과 대진주보살이 시립하고, 지지도살과 지장보살 좌우에는 갑주를 착용한 신장상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의 주조색은 황색·녹색·적색·백색이며, 장식 문양은 주로 소형초화문을 사용하여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화면의 색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인은 3구의 보살 모두 설법인을 취하고 있으며, 지지도살은 왼손에 경책(經冊)을, 지장보살은 왼손에 보주(寶珠)를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지도살의 좌우 협시로 용수보살(龍樹菩薩)과 다라니보살(陀羅尼菩薩)이 배치되고, 지장보살의 좌우 협시로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불영사 삼장탱」은 갑주를 착용한 신장상이 배치되어 특색을 보이고 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화기의 내용도 비교적 선명하여 조선 후기 불교 회화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학술 자료의 가치를 지닌다.⁸²⁷

827.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삼장탱」,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3일

5) 불영사 시왕탱(佛影寺十王幀)

불영사 시왕탱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 성보관에 있는 조선 후기 지옥 시왕을 소재로 그린 불화이다. 시왕(十王)은 사후 세계에서 인간이 지은 죄의 경중을 가리는 10명의 심판관으로 진광왕(秦廣王), 초강왕(初江王), 송제왕(宋帝王), 오관왕(五官王), 염라왕(閻羅王), 변성왕(變成王), 태산왕(泰山王), 평등왕(平等王), 도시왕(都市王), 전륜왕(轉輪王) 등이다. 시왕신앙은 민간신앙과 결합한 까닭에 사찰의 명부전·지장전·시왕전 가운데 한 곳에는 반드시 시왕도가 봉안되어 있다. 대개 조선 후기 이후의 그림으로 상당히 많은 작품이 전하고 있다.

불영사 시왕탱은 각 화면 102cm×77cm의 크기로 조선 후기 시왕도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상단에는 시왕의 심판 장면을, 하단에는 지옥 장면을 배치했다. 그림의 좌우 상단에 각각의 대왕 명칭을 적고, 화면 상단에 거대한 대왕과 판관·사자·우두신중·천녀 등이 그려져 있다. 푸른 문계구름으로 나누어지는 하단에는 10명의 심판관이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을 재판하는 광경과 고통 받는 망자들이 묘사되어 있다. 고려시대부터 많이 조성된 지장보살과 심판관인 시왕이 함께 그려진 지장시왕탱이 아닌 시왕만 단독으로 조성하여 존상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⁸²⁸

6) 불영사 영산회상도(佛影寺靈山會上圖)

불영사 영산회상도는 울진군의 불영사 대웅보전에 있는 조선 후기 후불탱화로 보물 제 1272호이다. 불영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으로, 대개 불상의 뒷벽에 위치한다. 부처가 설법하는 모임을 그린 회상도류의 불화는 석가모니뿐 아니라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불, 노사나불 등 여러 여래상을 중심으로 그려졌다. 고려시대의 불화는 여래상을 위에 두고 그 아래에 보살상과 권속들을 표현한 2단 구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중심 여래상을 보살상과 권속들이 둘러싸는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회상도는 사찰에서 중심 법당의 후불화 구실을 하였다.

이 영산회상도의 석가여래는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는 우견편단의 옷을 걸쳤으며, 손가락을 땅으로 향하게 하여 마귀를 물리치는 의미를 지닌 항마촉지인의 손 모양을 하고 앉아 있다. 석가여래 주변으로 10대 보살, 사천왕상, 상단의 10대 제자 등이 배열되어 있다. 주로 영산회상도에서는 8대보살이 그려지는데, 이 그림에서는 10대보살을 표현한 점과 석가불 아래의 그 보살이 유난히 큰 점이 특징이다. 석가의 옷이 붉은색이고 석가 뒤의 광배가 이중으로

828.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시왕탱」,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3일

붉은 테를 두른 점 등은 조선 후기의 불화양식보다 약간 앞선 양식적 특징이다. 채색의 사용법이 유창하고 아름다우며 묘사법이 정밀하여 그림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중심인물을 크게 표현하고 그 비중에 따라 하단에서 상단으로 좌우대칭적인 구도를 취하는 구도적 특성을 보인다. 석가모니불의 가사가 붉은색이고 광배가 붉은 테를 두른 이중 광배로 표현되는 점 등은 영조와 정조 때에 많이 제작된 조선 후기 불화의 양식이다. 이보다 앞선 작품으로 해인사 정보박물관 소장 「영산회상도」[보물 제1273호, 1729년]가 있으며, 하동 쌍계사 팔상전의 「영산회상도」[보물 제925호, 1681년], 대구 파계사 원통전의 「영산회상도」[보물 제1214호, 1707년]와 도상적인 면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영조 11년(1735)에 그려진 이 그림은 아랫부분의 화기에 제작 연대, 제작자, 제작에 참여하였던 인물을 밝히고 있어 제작 시기와 배경을 알 수 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 유행한 영산회상도 가운데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채색의 사용법이 유려하고 묘사법이 정밀하여 그림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어 18세기 조선 불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⁸²⁹

7) 불영사 지장보살후불탱(佛影寺地藏菩薩後佛幀)

불영사 지장보살후불탱은 울진군의 불영사 명부전에 있는 조선 말기 지장보살을 소재로 그린 불화이다. 지장보살은 석가 입멸 후, 56억 7000만 년 후 미륵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중간 시기인 무불의 시대에 출현하여 육도(六道)[지옥·아귀·축생·아수라·천상·인간세상]의 중생을 구제하는 대비보살(大悲菩薩)이다.

불영사 지장보살후불탱은 258cm×273cm의 크기로, 화면 중앙에 오른손에 보주를 쥐 지장보살이 결가부좌하고, 그 앞쪽에는 투명한 두광을 갖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시립하고 있다. 양쪽 가장 앞쪽에는 사천왕, 그 위쪽으로 녹색 두광을 갖춘 육광보살과 천부·판관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지장보살은 머리에 투명 두건을 쓰고, 붉은색 대의와 녹색 군의를 착용하였으며, 대의에는 연화이중원권문과 당초연속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지장보살과 여러 보살상의 육신은 황색을 발라 다른 권속과 구분 지었으며, 크기 또한 지장보살이 부각된 반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사천왕상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못하다. 상단 천공에는 군청색을 바르고 서기와 운문으로 여백을 메웠다.

화기에 의하면 고종 17년(1880)에 화승 서봉(西峯), 응순(應淳) 등이 제작한 것으로, 불영사 명부전의 후불탱화로 봉안되어 있다. 양측에 시왕도가 별도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화기의 내용도 선명하여 조선 말기 불교 회화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학술 자료이다.⁸³⁰

829.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영산회상도」, 디지털물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3일

830.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영사 지장보살후불탱」, 디지털물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3일

8) 울진 광도사 신중도(蔚珍廣度寺神衆圖)

울진 광도사 신중도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광도사 대웅전에 있는 조선 후기 불화이다. 광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로 1952년 5월에 주지 김봉호가 창건하였다.

울진 광도사 신중도는 세로 171.5cm, 가로 223.5cm의 규모로 비단 여섯 폭을 가로로 연결하여 하나의 화면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훼손이 심한 편이나, 화기를 통해 ‘울진’이라는 봉안 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화의 양식과 시주자명을 통해 19세기 중반 경으로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신중도 가운데 28위의 신중을 한 화폭에 담아 구성한 불화로써 병풍을 배경으로 천룡과 천부상을 구분하여 권속을 배치한 공간미와 구도를 잘 살린 작품이다. 이채색불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19세기 신중도의 도상 연구에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8년 7월 16일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62호로 지정되었다.⁸³¹

9)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蔚珍廣興寺大雄殿板壁畵-其他部材)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는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에 있는 광흥사 대웅전에 있는 조선 후기 불화이다.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는 광흥사 대웅전의 벽화부재[2건 19점]와 기타부재[1건 4점]로 모두 23점이다. 불전이 해체되면서 내부 빗천장에 그려진 주악천인도[9점]와 운룡도[10점], 그리고 기타의 묵서명문(墨書銘文) 부재[4점] 등이 수습되었는데, 묵서를 통해 영조 46년(1770)에 ‘부일(富一)’이란 화승(畵僧)이 그렸음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부일은 18세기 중·후반기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로서 다수의 작품이 전해진다.

경상북도 일대의 주불전에 주악천인도와 운룡도가 그려진 사례는 빈번하지만, 제작 시거나 제작자가 알려진 것은 없다. 이 유물들은 비록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뛰어난 필력과 대담한 구성이 돋보이는 벽화이며, 제작자를 알 수 있는 묵서가 있어 조선 후기 천정 벽화의 제작 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7월 16일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0호로 지정되었다.⁸³²

10)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蔚珍佛影寺神衆幀畵)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는 울진군의 불영사 대웅보전에 있는 조선 후기 불화이다. 신중은 인도의 재래적인 토속신으로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수용된 불교의 호법신들인데, 이처럼 별도로 그림을 그려 신앙의 대상을 삼기도 하였다.

831. 문화재청,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27일

832. 문화재청,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27일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는 삼베 바탕에 채색한 것으로 전체 크기는 세로 230.5cm, 가로 236.2cm이며, 화면크기는 세로 214.5cm, 가로 223.1cm이다. 팔곡병풍을 배경으로 상단에는 제석과 범천을, 하단에는 위태천을 중심축으로 좌우에 무장의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가장 많이 애용되었던 것으로 신중도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석천과 범천은 주위로는 일월천자와 보살, 주악 천중 등의 천부중(天部衆)이 둘러 서 있다. 이 아래 갑옷을 입고 깃털장식 투구를 쓴 위태천은 두 손으로 양쪽에 가지가 달린 삼차극(三叉戟)을 세워 잡은 모습인데, 앞 열 좌우로 사천왕, 팔부중 등 천룡팔부를 각각 3위씩 배치하였다. 그 뒤쪽 열에는 투명 두건과 초의 착용에 백익선(白羽扇)을 쥔 산신, 명왕과 사갈라용왕을 배열하였다. 색채는 적색과 녹색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반면 돋보이는 청색과 흰색의 남용으로 인해 화면이 밝아졌으나 차분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다.

화기에 의하면 이 신중도는 철종 11년(1860)에 금어(金魚)[불상을 그리는 사람] 의운 자우(意雲慈友)와 선의(善儀) 등 5인의 화원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운당 자우는 사불산 대승사를 중심으로 경상도와 강원도까지 활동한 금어로서 최고의 지위인 도총섭의 직함까지 갖춘 화승이었으며, 그의 작품은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보존되어 있다.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는 하단에 훑음이 떨어진 자국 등을 제외하면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정밀한 형태 묘사, 조화로운 색채의 구성, 힘 있는 필선, 화사한 문양과 장식 등에서 완성도가 높은 19세기 불화이다. 2010년 4월 5일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3호로 지정되었다.⁸³³

11)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蔚珍修真寺所藏佛畫)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는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수진사에 있는 조선 후기 신중도(神衆圖)이다. 신중도는 신중탱(神衆幀), 신중탱화(神衆幀畫)라고도 불린다.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불화로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사찰의 대웅전이나 극락전을 비롯한 모든 불전에 반드시 봉안되는 필수적인 불화이다. 신중도는 불·보살이 모셔진 전각이라면 대부분 걸리기 마련이어서 조선시대 불화 가운데 전해지는 수가 가장 많다.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인 신중도는 제석천룡탱화(帝釋天龍幀畫)로써, 제석천과 천룡팔부중을 함께 그린 그림이다. 이런 방식은 경상도 지역 신중도 중에서 가장 성행하였다. 천룡은 위태천을 중심으로 팔부중과 사천왕 등 무장의 신중을 일컫는 말로서 화면의 위쪽에는 일월천자, 보살, 천부중을 거느리는 제석천을 배치하고 아래에는 위태천을 위시한 팔부중을 배치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천룡의 대장격인 위태천은 불법 수호신으로 머리에 새 날개깃으로

833. 문화재청, 「울진 불영사 신중탱화」,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2020년 2월 23일

장식된 화려한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걸치고 합장한 팔위에 보검을 받들고 있다.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는 화기를 통해 1803년(순조 3)이라는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18세기말~19세기 초에 활동한 저명한 화승인 낭공(良工) 정옥(定玉)과 국성(國成) 등이 그린 불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있으면서 안정된 구도를 지니고 있는 신중도이다. 경상도 지역에 전하는 신중도는 조선시대 불화 양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승들의 고유한 화풍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불화의 크기는 전체 146.5cm×147cm이고, 화면은 134cm×133.5cm이다.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는 2009년 7월 6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53호로 지정되었다.⁸³⁴

박병선

834. 한국학중앙연구원, 「울진 수진사 소장 불화」,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2월 23일